

거리두기 해제 첫 명절... “추석엔 가족과 情 나누자”

3년만에 모처럼 코로나19 잊고 온가족 만남의 시간
추석 연휴 고향 찾아 3000만 명 민족 대이동 추산

추석(秋夕), 가장 풍성하고 여유로운 날. 가족과 함께 지내며 이웃과 정(情)을 나누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19’는 가족끼리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 그렇게 네 번의 추석과 설을 보내고, 이제 비로소 고향산천을 찾아 그토록 그리던 가족의 얼굴을 부벼 볼 수 있게 됐다.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지만, 다행히 코로나 3년째인 올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명절의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코로나는 명절의 모습마저도 완전히 달라지게 했다. 지난 2년여 동안 부모님들은 보고싶은 아들, 딸, 손주들을 애써 외면하며 “우리는 잘 지낸다. 할머니, 할아버지 괜찮다.”며 방역지침 이상의 거리두기를 준수했다. 자식, 손주들의 얼굴을 익숙치 않은 휴대폰 화면으로 쳐다보며 애써 서운함을 감췄던 ‘안락한 거리두기’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셈이다.

탐내고 만나지도 못하고 답답하기만 했던 두번의 추석과 설을 보내면서 어느덧 ‘비대면 만남’에 우리는 익숙해지고 있다.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고 여전히 곁에 머물러 있는 이번 추석,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녀들은 서로 귀성 날짜를 달리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다음 명절을 기약하는 것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바뀌는 획기적인 변화상을 짐작하면 무엇보다 명절 풍습일 것이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반드시 만나 모여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다보니 명절 때면 되면 연휴기간 철도, 자동차 등을 통해 4000만명이 민족 대이동을 한다. 평소보다 2~3배의 시간이 걸려도, 온 밤을 꼬박 새며 고속도로에 발이 붙잡혀도, 가족을 만나 에너지를 얻어 또 다음의 일상을 이어간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2년은 그 소중한 명절을 간소하게 치르고,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가족의 얼굴을 화면으로 만나게 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차례상 상차림도 줄었다. 아예 차례상을 차리지 않고, 가족 식사로 대신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 또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접촉을 꺼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관심과 소외된 이들에 대한 마음도 예전만 못하다. 타인과 떨어져 고립된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시대가 급변해도 추석은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되레 따뜻한 월급 통장에서 일, 이십만 원이라도 더 빼내 후원하는 따뜻한 가슴들이 있다. 자유가 억압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개인과 가족의 의미를 재발견, 명절 연휴 기간 평소 시도하지 못했던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쉽게 볼 수 있다.

간소화와 비대면이 정착됐다고는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이번 연휴에는 3000만명이 민족 대이동을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 19로 추석 풍경은 이미 많이 변했고, 이 풍경은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행은 아닐 듯 싶다.

비대면 추석이든, 거리두기 추석이든, 추석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은 어느새 훈훈해지고 따뜻해진다. 차례상을 차리든 차리지 않든, 고향을 가든 해외여행을 가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추석이길 바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고물가에 태풍 피해... “그래도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돌아왔다. 들뜬의 벼는 채 영글지 않았고 과일도 아직 단물이 들지 않았지만 그렇게 추석이 다가왔다. “없는 살림에 제사 돌아오듯” 한다지만 그래도 추석은 추석이다. 돌아보면 무참하고 허허로운 시간이었다. 코로나에 태풍 한남도 그리고 경제 불황은 우리의 삶을 옥죄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대변되는 3고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다들 저마다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던가.

이번 추석은 풍성한 의미를 담은 한가위처럼 마음만큼은 풍요롭고 여유

로웠으면 한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송편을 빚으며 한결같이 기원하는 것은 자식들의 건강과 미래 그리고 천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그래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보름달처럼 둥근 송편을 빚으며 속으로 되뇌이실 어머니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본다. 그 따스운 마음과 함께 우리 모두의 평안한 추석을 기원해본다. 사진은 광주시 남구 대지동 하촌마을 어머니들이 600년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송편을 빚고 있는 모습.

/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진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정진석 의원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당내 최다선(5선)인 정진석(62·사진) 국회 부의장이 7일 추인됐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대위원장직 수락의 뜻을 밝힌 뒤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한다.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집권여당의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 때문”이라고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달리 선택지가 없다고 하니깐 그렇다고 한가하게 그냥 뒷전에서 머물러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수락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정 부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집권여당을 안정시키겠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것이 제게 오늘 주어진 대의요,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당 소속 의원 75명은 정 부의장의 비대위원장 지명을 박수로 추인했다. 김용 의원 1명이 손을 들어 반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의장은 윤 대통령의 입당·경선 승리·이준석 전 대표와의 화해·야권 단일화 등 고비마다 당내 최다선(5선)으로서 무게감 있는 조언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영록 기자 kroh@kwangju.co.kr

추석특집 지면 안내

- 한가위 OTT & 책 ▶ 8면
- 한가위 극장가·가 볼만한 곳 ▶ 10-12면
- 연휴 TV 프로그램·하이라이트 ▶ 25-26-27면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 연휴 날씨			
9일(금)	10일(토)	11일(일)	12일(월)
19/29	18/27	20/28	21/27

추석 연휴 9 ~ 12일자 신문 쉽니다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한경, 광주에서 인쇄 시작

한국경제신문이 8월29일자부터 광주에서 인쇄를 시작합니다.
광주에서도 서울과 똑같은 생생한 뉴스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행복을 **가** 농다.
World Top K-water

한국수자원공사는 ESG 경영으로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연과 공존”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국민과 소통”하여
물로 나누는 행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낙동강하구둑

사회적력 발전양대